

90.10.11

취학전 자녀들 취업모 실태조사

취업모들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자녀의 위탁문제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느끼고, 80.6%가 자녀의 양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취학전 자녀들 취업모 1백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탁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19%는 떨어져 사는 것으로

구하고 탁아기관의 태부족으로 이용률이 아주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탁아시설의 바람직한 위치는 55%가 집근처를 꼽았는데, 직장 탁아소보다 집근처를 선호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탁아시설이용 적정시간은 시간제가 좋다는 대답이 41%로 가장 많고, 4~9시간이 26%이다. 탁아시설 이용비는 월 3~5만원이면 좋겠다가 26%, 9~11만원 24%, 5~7만원 23%의 차례로 나타나 대체로 10

'자녀문제로 퇴직 생각' 80%나

양가부모가 대부분 돌보고 탁아시설 이용 4%뿐

드러났다.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 친정부모(63%)나 시부모(27%)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의 성격 형성에 대한 염려와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두려움, 자녀의 교육문제와 생활태도에 대한 염려가 주종을 이룬다.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양가부모(6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파출부·이웃·친척에 맡기는 경우는 30%이며 탁아기관 이용은 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탁아수요가 많음에도 불

만원 이내를 적정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탁아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탁아모의 교육정도가 23%로 으뜸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79%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30~39살의 젊은 탁아모가 아이를 돌봐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 차원의 탁아정책수립 △탁아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탁아수요를 정확히 파악,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